

□ 학회, 학술활동이 나아갈 방향

# 구슬이 서말이면 꿩이 많아도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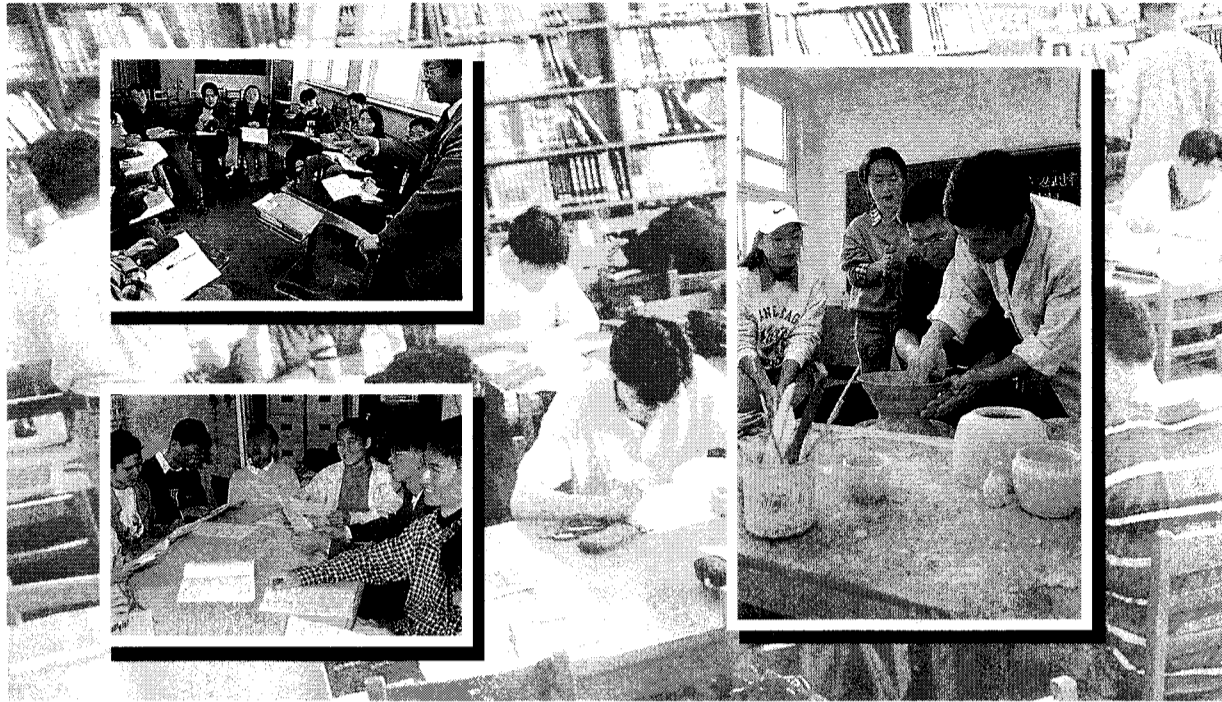
## 개별적인 학술활동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대학의 진리 탐구는 대학인의 고민, 문제의식을 자기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 이와같은 고민은 대학의 학문활동뿐만 아니라 대화문화의 기틀을 쌓는 초석이 된다. 진리탐구는 전공과목의 커리큘럼은 학내 학회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학내 학회, 학술활동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과(부)생들만 구성된 스터디 그룹(study group) 형태이다. 이는 각 학과 학회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주로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거창하게 학술행사는 명분을 내걸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소모임을 갖는다. 또한 교수, 대학원생, 학과(부)생이 주축을 이루는 형태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학과(부)생들이 제1차적인 위치에서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상시적인 학술행사보다 일회적인 즉 이벤트적인 형식의 세미나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대학원생, 학과(부)생들이 주축인 연구 중심의 스터디 그룹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어떠한 결과물 창출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한다.

학회, 학술 활동은 전문성을 담보로 하며 지식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학회, 학술활동은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온다. 학술활동을 통해서 현재의 학과 커리큘럼을 보완할 수도 있으며 커리큘럼의 진일보한 발전도 가능하다. 학술활동은 자기계발 및 다양한 인접 학문을 접할 수 있다. 또한 학회, 학술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문제해결 능력 배양은 대학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학내에는 이렇듯 많은 학회, 학술활동 단위가 있으나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내에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학회, 학술활동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의 학회, 학술활동은 대부분 교수, 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학내에 산재해 있는 학회, 학술활동 단위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는 많으나 제도적인 준비가 이뤄져 있지 않아 우후죽순식으로 난립해 있을 뿐이다. 또한 학과(부)생중심의 활동은 학회, 학술활동이 목적이기보다는 '모임', '친목 도모'라는 목적에 치중되어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은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학회, 학술활동, 즉 공동체를 통한 학문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학내 학회, 학술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과(부)생 중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학과(부)생들은 대학원생은 '연구자', 학과(부)생은 '학습자'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제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학회,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술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학교 차원의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도화란 학내 학술활동의 학칙 제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 학술활동 단위들의 제도화를 뜻한다. 즉 제도화는 학회, 학술활동 단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학회, 학술활동 단위간의 유연성있는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 이는 학과간의 연계

를 통해 발전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현대에 적응하는 한 방법이다. 학교 차원의 지원 및 제도화 그리고 각 단위간의 연계 등의 방법과 더불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증대된다면 활발한 학회, 학술활동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강의실과 실험실에 묻혀 있는 지식만으로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 할 수 없다. 스스로 연구하고 서로의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한 지식 획득이 필요한 때이다. 비록 작고 미약한 학술활동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역동적인 힘과 다원화된 의견 그리고 문제 해결력으로 학내 학풍을 만들고 나아가 건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자은정 기자)

□ 우리학교 학내 학술활동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자발적 관심 토대 위에 지원 통한 학술활동 강화

우리 학교에서 현재 활동중인 중앙 학술 동아리는 서울 8개, 수원 10개가 있으며 이 밖에도 각 단과별, 학과별로 학술 동아리 또는 학회가 있다. 학회, 학술활동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학과(부)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형태와 둘째로 교수,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지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생·교수·학과(부)생 및 학교나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학회, 학술활동이 그것이다.

정경대 정의과에서는 매주 월요일 '월요 이야기'라는 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회의 주제는 정의과 및 정치행정학부 학생들이며 매주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그 주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월요 이야기마다 학회활동에서는 시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운영에 의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학회 활동, 스터디 그룹 등이 있다. 반면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어 학과(부)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형태로는 자연대 화학과에서 주최하는 '화학과 세미나'가 있다. 이는 매 학기마다 세미나 일정을 잡아 학기 중에 약 6번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화학과 세미나 총괄

하고 있는 김용호 교수는 "거의 2-3주에 걸쳐 한 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대, 포항공대가 1주에 1번씩 초청강연회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교수는 "학과(부)생들의 자제적인 학술활동은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과 세미나 활동과 같은 형태의 활동은 대학원생 중심으로, 이와 학문의 경우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학과의 전문적인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 대학원생, 학과(부)생들이 중심을 이뤄 프로젝트적인 성격의 되고 학교나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술부)

□ 제 2회 독서 토론회

- 고은의 '만인보', 문학과 인간평등사상



### 아직도 먼 '만인보'의 길

시인 고은의 '만인보'에 관한 독서 토론회가 지난 13일 서울 캠퍼스 중앙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시인 고은의 '만인보, 문학과 인간 평등사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지정토론 및 독자와의 공개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독서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고은씨는 "오후 3시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도 이르고 무엇인가를 하기에도 늦다"라는 실존주의 작가의 말로써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는 "시간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 운명에 있어 또다른 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자신의 연작 행위의 산물에 대한 일정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만인보'는 그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감옥 속에서 '백두산'과 함께 구상했던 작품으로, '만인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집결된 작품'이므로 한번 읽기를 권한다는 말을 끝으로 50여분만에 결연 강연은 끝났다.

저자의 강연은 곧이어 한원균(충주전통대 문예창작과 교수) 씨와 김수이(우리학교 국문학 강사) 씨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현재 15권까지 나와있는 만인보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한원균씨의 질문에 아직 손대지 못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까지의 역사와 인물을 책임 있게 그려내고 80, 90년대 변해 가는 인물들까지 담을 수 있는 30권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라고 그는 말했다. 쿠키는 만인보의 장르에 대한 김수이씨의 질문에 그는 '역사서적이지만 문학과로 생각하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처럼 서정과 서사를 넘나들 수 있는 종합적이고 초장르적인 시를 쓰고 싶었고 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씨는 인간에게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고독한 실존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면 관계적인 존재라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그 만남은 운명적인 것이라며 만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시인 고은은 험난한 삶의 과정을 온몸으로 부딪혀 온 이시대의 대표적 문인이다. 그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 그의 문학에 이념적인 형상성을 획득하게 하였고 삶과 문학, 문학과 역사가 하나가 되어 고은의 시와 문학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고세희 기자)

### 학술 활동

화공과 대학원 학술세미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 계승과 명예회복 위한 98년도 제 1차 학술회의

공대 화공과 대학원에서는 '평판 디스플레이용 ITO 투명전극'을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4시 공대 세미나실 401호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연사는 삼성전관 기술본부 기초연구 Lab 이충훈 박사이며 산화철력 기술연구원 채로, 화와 기술부에서 후원한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 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98년도 제 1차 학술회의가 오는 22일 오후 4시 종로성당에서 개최된다. 고려대 강만길 교수의 기조 연설을 비롯 강원대 배동인,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토론이 있다.

대학전문 커뮤니케이션 그룹 - 유니콤

# '98 韓國大學年鑑



대학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 대학 개황**  
대학이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대학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기록 및 분석, 행사기사 수록내용 : 대학일지, 대학연보, 대학기원, 달라진 대학인사제도, 학회별 대학내부 및 신입생 모집정보 등
- 대학 현황**  
국내 전체 대학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끔 세부 사항을 수록  
수록내용 : 대학의 소재지, 연혁, 발전계획, 학교특색, 발전계획, 교육과정 및 기원, 실용성과 교수진, 외국인학생, 신입생, 학원제도, 연구수행기관,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대학원, 동맹학 등
- 외국대학 현황**  
99개국 2,249개 대학의 세부정보 방과  
수록내용 : 국가별 면적, 인구, 주민 언어, 교육제도 등 개황/대학의 연혁, 설치목적(부), 교수진, 교수 수, 학생수, 학기 등
- 대학간계명령**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저서권법 등 50여종의 대학관계 개정법령을 수록
- 자료 통계**  
대학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통계  
수록내용 : 대학종합평가(연세, 대외관계 문헌 목록, 학원논문목록, 각종 통계, 표 등)
- 연구소·문화단체 현황**  
국내 3,000여개 연구소·문화단체의 총원, 각 기관단체의 조직, 주요연구와 문화단체의 분야 등을 수록  
수록내용 : 소재지, 연혁, 주요업무, 조직, 대표, 이사회, 구성원, 예산, 연구기관, 연구실적, 대외교류현황, 국내외 협력기관, 전문도서 보유현황 등
- 대학교수 인명록**  
전국 4년제 대학·전문대학의 전임교사 이상 모든 대학교수에 관한 인사사항  
수록내용 : 교수명,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학위논문 제목), 주요경력, 번역(전공분야), 직책, 주요 저서, 자택주소, 연락 전화번호 등

한국대학신문  
서울시 중구 광복동 2가 309-1(동인빌딩)  
TEL. 278-1105 FAX. 263-2389

공무원 자격시험에 관한 공공증을 상담해 드립니다

사 법 시 고 험 시	공 공 사 고 시	7·9급
		공 무 원

언론고시	변리사
교사채용	법무사
경찰간부직	주택관리사

30년 전통의 전문강사진 직강 (공무원 최초학원)

충실한내용 / 새로운체계 / 전국최다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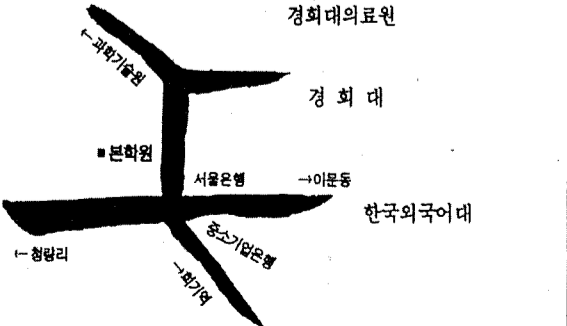
## 行政考試學院

전철1호선 종각역 2번출구 TEL 734-8082, 9484

## 운전면허 조기취득 기획!

※취업필수과목  
총 교육비 대폭 할인 20%

- 접수대행(과별, 단체, 특별할인) + α
- 책임교육(편리한 시간 배정)
- 합격률 95% 이상 (기초 및 실습 최고의 시설완비)
- 도로주행, 시내연수, 알찬교육
- 접수→교육→취득까지 최상의 서비스



상담 : 경안 운전면허 네트워크 ☎963-4278, 8407  
고대본점 : 929-0362~3